

더민주 “법사위 통큰 양보”
 새누리 “정무위·운영위 못줘”
 국민의당 “지각 개원은 안돼”

꼬여가는 원구성 협상

20대 국회 D-4... 더민주 “무제한 협상 하자”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나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꿈을 쓴다”며 국회의장직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법사위원장을 가져야겠다고 주장했던 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말고 있고 특정당이 운영위·예결위·법사위 독식한 전례가 없어 균형과 조화 원리로 국회 운영돼

야 한다는, 운영위 예결위까지 독자지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더민주의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양당의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꿈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을 받아도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계속 이런 꿈을 부리고 있다”면서 “우상호 대표가

한 얘기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속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운영위는 우리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상임위”라며 “(더민주의) 국회의장 정무위 운영위 달라는 이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 본인이 어떤 양보 했다. 정무위 양보했다, 운영위 양보했다 이 얘기가 있어야 양보라고 할 거 같은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통 큰 양보는커녕 더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게 협치인지 아치인지, 아무리 여소야대 국민이지만 이런 식으로 억박질러서는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지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를 자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은 양당이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반드시 7일 원구성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서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 당사자들이 만나 교황 선출을 위한 ‘큰글래’처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무제한 협상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기문 대선 지지도 1위

리얼미터 조사 25.3%...문재인 22.2%·안철수 12.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를 조사에서 기존 여야 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유권자 2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반 총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5.3%로 가장 많았다. 반 총장은 리얼미터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를 조사에 처음 포함되지만 선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22.2%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 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2%나 포인트나 떨어진 12.9%, 박원순 서울시장 1.3%포인트 하락한 6.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10.4%→4.3%),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6%→3.8%), 무소속 유승민 의원(4.5%→2.9%), 더민주 김부겸 의원(4.3%→2.5%), 남경필 경기지사(3.2%→1.8%) 등은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리얼미터는 “기존 문재인·안철수의 ‘야야(野野) 양강 구도’에서 반기문·문재인 ‘여야(與野)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면서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대권주자의 지지층이 반 총장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일만에...새누리 정상화

비대위 인선 통과...전대 전 탈당파 복당 최대 쟁점

새누리당이 2일 혁신비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달아 열어 김희욱 혁신비대위원장 선출안과 김영우·이학재 의원 등 10명의 혁신비대위원 추천안을 참석자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사퇴한 지 50일 만에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 혁신비대위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한 형태로,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전대회 전까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정책, 정치 개혁안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대 전까지 탈당했던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 복당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는 내부인사로 당연직인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과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이학재 의원이, 외부 인사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안도출신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운선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비박계 3선의 권성동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 친박계 재선의 김태흠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김희욱 혁신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김선동 의원을, 대변인으로는 지상욱·김현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법률지원단장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을 내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 文 혁신안 ‘최고위 폐지’ 뜨거운 감자 부상

찬반 팽팽... ‘일부 유지안’도
 다음주 의원간담회서 논의
 지도부 논의도 표류

오는 8월 27일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당내에서는 혁신안을 폐기하고 최고위원제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혁신안의 일방적 폐기는 안 된다는 반발도 강하게 나오면서 전대 준비가 표류하고 있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 시절 해당 혁신안을 만든 혁신위원회는 1일 전대준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최고위원회 폐지를 혁신안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대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폐지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분과위원은 “성급하게 혁신안 폐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원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중한 접근은 최고위원회 존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속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의원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우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를 앞두고 갈등의 비화를 막기 위해 다음 주 초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간담회에서는 당헌당규 문제, 혁신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가운데 일부는 현행대로 최고위원으로, 일부는 혁신안에 따라

최고위원이 아닌 대표위원들로 채우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혁신안은 권역별·부문별 대표위원을 뽑고 제안했지만, 현재 부문별 대표위원을 뽑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당장 부문별 선거인단 구성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권역별로 대표위원을 뽑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며 “권역별로만 대표위원을 뽑는 절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함께 선출(순수 집단지도체제)할 것인지, 따로 선출(단일성 집단지도체제)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동철 “법인세 22%로 환원하자”

세법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억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오는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1000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100

억 원 이하의 27만 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로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조가 쌓이고 정부 재정은 200조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대기업만 배 불리는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 형 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 입학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女
의사, 변호사 32~72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공무원, 교사 32~5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비안빌 B10 6층

02) 521-4405 전주서 서산동 275-7766